

## ‘휠체어의 천사들’ 애틋한 형제애

지체장애 황태연·상연군의 남다른 어린이날

“동생은 나의 보물” “형이 세상 최고야”  
온몸은 굳어가지만 꿈·희망 잃지 않아

“어린이날 선물이요? 우리에겐 가족이 최고의 선물이에요.”

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4일 광주시 북구의 한 병원에서 만난 황태연(문우초교 6학년·14)군은 온몸이 점차 굳어가는 근이영양증으로 거동이 불편한 지체부자유아(지체장애 1급)다.

태연이의 동생인 상연(4학년·11·지체장애 3급)이도 같은 질환을 앓고 있지만, 그나마 병의 진행 속도가 더딘 편이다.

훈자서 물을 깊이 입을 수도 씻을 수도 없는 태연·상연이지만, 학업 성적과 열의는 상상을 초월한다.

태연이는 지난 4월에 학교 영어 노래 대회에서 영어 발음을 하나도 틀리지 않고 완벽하게 암송해 최우수상을 받았으며, 학급별 환경신문 발표대회에서도 특기를 발휘해 그린 만화로 친구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기도 했다.

이처럼 해맑은 아이들이지만, 언제 침대에 의해 생활해야 할지 모르는 어두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 태연이와 상연이는 근이영양증 진단을 받은 것은 지난 2002년 초여름.

아이들이 걸어가거나 넘어지는 게 이상해 병원에 데려가 정밀 검사를 받았더니, 둘 다 같은 병에 걸린 데다 고치기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됐다.

태연이 아버지(38)는 2년전 아들 형제와 아내 나명옥(35)씨를 남겨두고 따로 살게 됐다.

나씨는 그 뒤 서울 생활을 뒤로하고 친정(전북 순창)과 가까운 광주로 내려와 자리를 잡았다.

어머니 나씨는 “첫째 아이가 ‘아빠가 우리를

버린 건가요?’라고 평생 울 때가 가장 힘들었다”면서도 “몸이 좀 더 불편한 큰 애한테 둘째가 거실 바닥을 한참 기어여 TV리모컨을 전달하는 모습을 봄에 지켜보는데 눈물이 멈추지가 않았다”고 털어놨다.

황군의 가정 형편은 저소득층 중에서도 극빈 등에 속한다. 일주일에 두 번, 물리치료를 받는데 들어가는 병원비는 정부가 지원해주지만, 집을 임기 위해 은행에서 대출 받은 돈의 이자와 생활비를 기초생활수급비(70여만원)로 충당하며 어렵사리 버텨나가고 있다.

나씨는 지난해까지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조금씩 벌었지만, 아이들의 몸이 하루가 악화되 잠시라도 걸을 수 없게 됐다.

온몸이 점차 굳어 몇 년 뒤면 침대에서만 생활할 수밖에 없지만 태연·상연이는 여느 초등 학생과 다름없이 자신들만의 꿈을 그리고 있다.

만화가 ‘강풀’처럼 만화 하나에 자신의 모친이니지를 쏟아붓겠다는 태연이,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지켜주기 위해 ‘경찰’에 투신하겠다는 상연이는 미래의 꿈을 말할 때가 가장 행복하다.

태연이는 “집에서 혼자 할 수 있는 것을 찾다가 만화를 그리게 됐다”면서 “동생은 제대로 앉지도 못하면서 누구를 지켜주려고 경찰이 되고 싶다고 하는지 알아달라고 했다”며 활짝 웃었다.

어린이날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 두 형제는 “우리 가족이 지금처럼 행복하게 함께 모여 사는 것”이라며 소박한 소망을 털어놓았다.



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4일 광주의 한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는 황태연(오른쪽)·상연군. 온몸이 굳어져가는 근이영양증에 걸린 형제의 병은 진행을 늦출 순 있지만 막지는 못한다. 날마다 몸은 굳어져 가지만 만화가와 경찰이라는 장래 꿈을 키워가는 아이들에게서 ‘희망’의 소중함을 배운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아이들의 속 깊은 말을 옆에서 듣고 있던 두 아이의 엄마는 “주변에서 ‘아이들이 저어서 어떻게 살아요?’라고 물을 땐, ‘저렇게 속 깊고 사 이좋은 아이들이 무럭무럭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살지요’라고 말한다.”

문우초교 김용준 교장은 “이 두 형제는 신체 만 아플 뿐이지, 내면은 그 누구보다도 맑고 건강하다”면서 “완쾌돼 자신들의 꿈을 이루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백진표·김형호기자 기자 lucky@kwangju.co.kr

## 檢 ‘盧 의혹’ 수사결과 총장 보고

영장청구 입장 포함안돼

임채진 검찰총장에게 보고했다.

〈관련기사 4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이인규 검사장)는 4일 오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혐의에 대한 수사기록 검토 보고서를

보고서에는 노 전 대통령과 박연자 태광실업 회장 간의 돈거래를 둘러싼 사실 관계와 관련자 조사 내용 및 증

거, 법률검토 내용 등이 담겨 있다.

그러나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수사팀의 입장은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다만

증수부장이 수사팀의 의견을 취합, 적

정한 시점에 총장에게 구두로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임 총장은 전국 고검장급에게 전화

를 하거나 고위 간부 회의를 열어 내

부 의견을 수렴하고 중수부 이외 대검

일선 부서가 작성한 영장 청구 또는 불구속 기소의 경우 장·단점 등에 대

한 보고서 등을 두루 반영해 최종 결

론을 낼 전망이다.

최종 결정은 예상보다 늦어져 일리

야 이번 주 후반께, 아니면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 미술·작문 접수 시작

11일 마감… 28·29일 실기대회

예술 꿈나루들의 큰잔치 제 54회 호남예술제가 11일 미술·작문 대회 참가접수를 마감합니다. 신록이 싱그러운 5월의 하늘 아래 펼쳐지는 예술잔치에 미래의 화가·작가 여러분의 많은 참가 바랍니다.

1. 대회방식: 현장 실기대회(예·본선 없음)

2. 일정 및 개요

\* 참가자격: 전국 초, 중, 고등학교 재학생

\* 신청기간: 2009년 5월 4일(월) ~ 5월 11일(월)

\* 신청방법

(1) 인터넷신청 : http://www.kwangju.co.kr 호남예술제 배너클릭

(2) 우편신청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사 16층

호남예술제 담당자 앞

(3) 방문신청 : 광주일보사 문화홍보국 (062) 220-0541, 평일 09:

00~18:00 / 토요일 09:00~13:00(일요일 제외)

\* 참가비 5000원

\* 대회일시 및 장소

(1) 초등부: 5월 28일(목) 13:00~16:00, 금호페밀리랜드 및 우치

공원동물원

(2) 중·고등부: 5월 29일(금) 11:00~16:00, 우치공원동물원

\* 결과발표: 2009년 6월 10일(수)자 광주일보 및 광주일보사 호남

예술제 홈페이지

\* 시상내역: 최고상, 금상, 은상, 동상, 입선

• 주최: 광주일보사

• 협찬: 삼성생명

• 후원: 문화체육관광부·광주광역시·전라남도

광주광역시교육청·전라남도교육청

오늘 어린이날… 내일 신문 쉽니다

예/의/본/서  
062) 515-7602